

## “우리 文化創造의 指標가 되도록 해야”

宋 旼 求 — 송민구건축연구소

### □ 建築言語에 있어서의 傳統과 現代性 생각할 때

독립기념관 건립에 온 국민이 앞을 다투어 그 정성을 다 하는데 즈음하여 그것이 지녀야 할 형태가 어떤 것이라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건축가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잘못 판단을 내리기 쉬운 어려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전통계승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 서구사상에 물들어 전통타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통은 계승되어야 한다고 하여 생각들이 분열되고 있는 처지이다.

우리의 언어를 단절할 수 없듯이 전통은 단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통을 계승하여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면서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어느 누가 명확히 정의할 내렸던가. 건축에서의 전통계승 문제는 비단 건축에서 뿐 아니라 타분야에서도 규명되어야 할 문제인 것을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마치 고건축의 양식이 우리의 전통인양 막연히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동양 3국이 다 지닌 건축양식이며 우리의 고유의 문화는 아니다.

또, 그 곡선이 지닌 의미론적(Semantic) 해석을 내려 확증된 바도 없다. 필자가 해석하기를 그러한 정현곡선(正弦曲線)은 다름아닌 황도(黃道)의 곡선을 상징한 것이며, 고대에 있어서 제왕은 자신이 하늘이요 임금이라는 것을 상징한 것에서 비롯되었었고, 평민은 초가에 그 부드러운 곡선을 도입하여 수복강역을 빌었던 것이다.

좋은 예가 태극문양이며, 원은 하늘을 상징하였고 곡선은 황도를 상징한 것이다.

우리민족이 언어에서 Ural-Altai 계 언어를 사용함에서 유추되는 민족의 뿌리가 Scythia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그 Scythia의 예술에는 10자형 태극문양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두 곡선은 황도와 백도(白道, 달의 궤적)를 상징한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그러한 곡선에 대한 해석이 옳고 그르긴, 가장 특징적인 곡선을 직선화하여 그것으로 전통계승을 한 양 건축가들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의 고유의 것으로 직선과 곡선이 병존하여 현대감각마저 풍기며, 설사 그 형태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던 우리 조상이 독창력을 발휘한 3차원적 예술작품은 신라시대 석탑 이외는 없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중국은 전탑(塼塔), 일본은 목탑(木塔)이 그들의 자랑이나, 우리의 석탑은 독창력을 넘어서 현대에 이올 수 있는 가능성마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비단 독립기념관과 같은 상징성을 강조하여야 할 건축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건축문화 창조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깊고 철저하게 문제를 파헤치고 밝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역사상 우리의 문화는 중국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며, 또 해방 후 서구의 기계관적 사고에 휩쓸려 이에 시야가 흐려진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한다.

한국건축역사를 정립함에 있어서 하나같이 형식주의에 홀려 비교역사학적 방법에서 탈피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결함의 하나이다. 왜 정신사적 방법에서 맥맥이 흐르는 우리 민족의 얼을 건축사에서 찾지 못하였던가.

그 속에는 삶에 대한 집념이 미화되고 상징화되어 있으며,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같을 수밖에

에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삶을 부인하고 죽음을 긍정하는 문화란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하였는가에 따라 형태는 변천의 길을 따랐던 것이다.

독립기념관 또한 그러하다. 그것이 지녀야 할 1차적 기능이라는 것은, 물론 역사상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의 흔적을 담음으로써 후세에 길이길이 삶의 의미를 알리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에 소장될 모든 것은 영구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건축으로서의 기술적 코드(Technical Code)는 어떠한 것이라야 할 것이고, 보존 과학적으로는 어떠한 기술적 코드라야 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또, 통사적 코드(統辭的 코드, Syntactic Code), 다시 말하여 공간형식은 어떠한 형식이라야 한다는 것도 그러하다.

### □ 우리의 建築言語로서 표출 바람직

그러나 의미적 코드(Semantic Code)에 있어서, 다시 말하여 2차적 기능의 복합체로서의 상징성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되는가.

우리의 건축언어가 아닌 외국의 건축언어로서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이제는 건축언어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이화감을 느끼지 않고 사용하면서도 건축언어라는 개념조차 명확히 지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것이 못내 안타깝기만 하다는 것이다.

무한논쟁에서 인류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언어의 애매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세계의 지성들의 노력이 언어학, 논리적 실증주의의 철학을 발달케 하였던 것이고, 그에서 파생되어 나온 건축언어라는 낱말을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고찰방법으로서 건축이라는 조형예술을 건축언어로서 바라다 보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Umberto Eco의 말을 빌려 건축기호론(Semiotics of Architecture)의 측면에서 바라다 볼 때

건축언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모든 것을 의미를 지닌 기호(記号, Sign)로 간주하며, 언어 역시 언어기호로 보고 있다.

그 언어라는 것을, 인간이 사물을

### □次元높은 建築言語로서 표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언어 이외는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모든 것을 언어화하며, 조형예술에서조차도 시각영상(Image Visual)을 언어화하여 영상과 함께 기억의 흔적(E-gram)으로 담아 그 감정을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다만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 말하자면 문학·연극 등과 같은 논술적 형식(論述的 形式, Discursive Form)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언어의 Model에 따를 수는 없고, 언어를 아름답게 가다듬는 수사론적(Rhetorical) 정식화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건축이 시에 비유되는 것도 모든 설명적인 요소는 제거되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건축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소멸과 재생과 치환(置換)의 길을 걷는 것이다.

또 건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초·기둥·보·지붕·벽·창·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합체(統合體, Syntagm)이며 각 구성요소, 즉 계열체(系列體, Paradigm) 중에서 하나 또는 몇가지의 형식을 택하여 작가가 그의 문법 또는 사상에 따라 과장·반복·압유 등 수사론적 수법을 구사하여 조합을 만들어 건축이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어떤 문맥(Context)을 담으려 하고, 판조자 또는 이용자는 그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건축언어를 읽음(Reading)에 있어서 그 나름의 해석을 하고 감동을 느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문맥에 또는 영감에 가까이 하였을 때는 더욱 감동이 강렬하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맥이 난해한 것, 전혀 새로운 것, 전문가간의 말에 가득차야 할 것인가. 쉬운 말, 즉 구어체로서 대중을 설득하여 차원 높은 정보에

로 이끌어 가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 인 건축사조의 흐름인 것이다.

건축언어로서의 구어체, 우리들의 일상 언어와 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의 근거인 것이다.

결하여 어떤 기능이 완수되려면, 필연적으로 코드화(略号化, Codification) 되어야 하고, 그 코드에 근거를 두어 전달(Communication)이 되며 관습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시골사람에게 Elevator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시골사람은 앞에서 말한바 과정을 밟아 Elevator를 조작할 줄 알게 되고 Elevator로서 층이 다른 층으로 가고자 하는 기능이 완수되는 것이다.

관습화 된다는 그 자체는 새로운 것, 즉 항상 유행에 뒤지는 어떤 것을 남기는 까닭이 되는 것이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전위조각가들이 시도하고 있는 형태에서 Modiperandi적인 것이 건축에서도 시도되어 마을의 전체가 초현대적인 것을 이루고 있는 실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생존권 수호위한 투쟁 역사

#### 답이야

그렇다고 하여 생활마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어자체도 그러하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물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정된 수의 어휘로서는 모든 인간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애매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언어는 문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일상언어는 발화(發話)되는 그 당시의 장면(Situation), 건축에서는 환경 또는 외적 코드, 말하는 사람의 음성·표정·몸짓 모든 것이 뒤따름으로써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듯 언어의 다의적(多義的, Multivalent)인 것과 같이, 건축언어는 더욱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Modernist들은 일의적(1義的, Univalent)

으로 취급함으로써 급기야는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일상성 부재로 미국의 프루이트 아이고(Pruit Igoe) 아파트단지를 폭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언어 자체도 그러한데, 더욱 해명하기 어려운 건축언어를 Pattern Language로서 Design Method로 삼았던 Christopher Alexander도 스스로 그 이론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요컨대, 언어에서 개념의 외연(外延, Extension, Denotation) 또는 1차 언어체, 기층언어체(基層言語體), 또는 Parole, 구체음(具體音), Signifiant(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에 해당하는 건축언어의 1차적 기능 또한 분명하다.

### □모든 건축가가

#### 참여·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개념의 내포(內包, Intension, Connotation) 또는 2차 언어체, 장식언어체(裝飾言語體), 또는 Langue, 말의 뜻, Signifié(이미 지워지는 것)은 다의적(多意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건축언어의 2차적 기능의 복합체는 비단 건축언어 뿐이 아니라 모든 예술의 내용은 표현과 같이 1의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건축언어에 Vernacular(방언)한 것이 병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고전성과 근대성이 병존되어 일종의 절충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건축사조인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전통계승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형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하고 형태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로서는 우리들이 우리들 것이고, 구어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유형의 민속학적 자료들일 것이다.

Umberto Eco가 지적하듯, 우리에게 익숙한 유행에 뒤진 것이 필연적으로 남으며 그와 함께 시대를 앞서는 문명이 그것을 감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 Bruno Zevi가 말하듯, 건축의 본질은 내부공간의 의미에 있다는 논

리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가장 상징성을 강하게 표현하여야 하고, 면면히 흘러온 우리의 얼을 담을 독립기념관은 어떠한 관념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명확히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학자, 말하자면 역사학·과학사학·민속학·언어학·인류학 등 관련이 있는 분야와 기술분야의 모든 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히 부각시켜 주어야 한다.

결하여 건축행위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재능에 의존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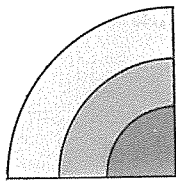
일관된 문맥 속에서 예술가 각자의 작품이 융화되는 것이라야 하며, 한 작가의 감각이 부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성금이 모금되는 과정에서, 내 소원을 벽돌 한장에 담은 그러한 독립기념관일진대, 모든 건축가 모든 예술가가 건립에 참여하여 봉사한다는 그러한 독립기념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독립기념관이 그 건립을 계기로 우리 문화창조의 지표가 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필자의 논리에 어긋남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항상 이념은 모든 것을 앞서는 것이며, 올바른 이념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히 서두름으로 해서 응졸한 일이 있다거나 잘못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필자 나름의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는 바다.



## 紀念館建築의 美學的 問題

### : 獨立紀念館의 場所性

金 慶 洙 — 明知大學校 專任講師

#### 1. 場所性的 建築論的 의미

문제를 적절한 것으로서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그 해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된다고 할 때, 한국건축계에 주어진 커다란 도전으로서의 독립기념관 건축에 대해 어떠한 물음을 건축가들 스스로가 물어야 할 것인가? 1983년이라는 착공시기의 설정에서 보이는 그 조급성으로 인하여 이 문제는 실로 건축가들에게 절박한 것으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충분한 설계기간을 확보하는 일뿐만 아니라 건축가들 자신의 건축철학을 재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도 건축계 내외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실마리를 건축계 내에 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우선 기념관건축의 미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며, 독립기념관의 기념성, 특히 현대건축의 중심문제라고까지 주장되고 있는 장소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다.

장소성(Placeness)이 건축 예술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가 있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넘어서서 기념관건축의 기념성 자체가 그러한 장소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독립기념

관의 미학적 조건들을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철학적 논쟁들이 그 논쟁 속에 등장하는 개념들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결된다고 보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견해는 비록 지나친 것이기는 하지만, 건축적 논의 속에 등장하는 용어들이야말로 그러한 개념적 한정이 없이는 조금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때로는 오히려 말의 혼란이 건축가의 설계행위를 오도할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건축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소성의 개념이란 어떠한 것인가? 미국의 현대건축가인 찰스 무어에 의하면, 장소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건축가가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 또한 해야만 할 — 유일한 의미있는 일이며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건축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있으며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바로 독립기념관이 지녀야 할 장소성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 즉 그곳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자기 동일성(Identity)을 확신하게 될 장소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미래의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과 통하는 것이지만 그 미래상은 과거에 대한 반정립관계에 놓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20세기 초반의 전위예술가들의 끊임없는 과거부정이라는 창의성개념이 한계에 다다름으로서 드러나게 된 사실이며, 서구현대 건축에서의 탈근대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역사를 건축창작의 근본토양으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장소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선 크게 말해서 장소는 하나의 공간에 사건(Event)이 결부될 때에 생겨나며, 그 사건이 시간적 거리를 갖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기억에 담겨있을 때 그 기억을 자극하는 수법에 의해서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전자는 행위들에 의해, 후자는 역사적 암시로서 장소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독립기념관이 장소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그곳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요구되며 둘째로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적 기억을 건축적 어휘로서 불러일으켜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의 건축 이론가인 브롤린(Brolin)과 노르버그-슐츠(Norberg-Schulz)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존 건축 환경에 대한 고려(Contextualism), 즉 주변환경의 문맥과 현재의 상황적 의미로부터 부여되는 장소성과, 과거의 건축사뿐 아니라 현대도시의 상업 지구의 복잡한 가로에서 일상적 삶의 생동감을 잃고 이를 건축창작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벤추리(Venturi)의 장소성 개념 등을 고려에 넣으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의 미학적 조건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위치의 문제 — 어느 곳에 세울 것인가?

독립기념관으로서 적절한 위치적 조건은 미학적 고려의 선결조건으로서 다른 어떠한 조건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에 논의한 장소성 실현의 가장 큰 줄거리는 바로 그 건물이 놓이게 될 자리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장소성이 부여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건축가의 자유분방한 조형적 작업에 제한적 작용을 하리라고 볼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건축가의 불필요한 자의적 형태조작의 수고를 덜어주고 건축 언어의 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독립기념관의 입지조건으로서 첫째 조건은 역시 역사성을 들어야 하겠다. 그것은 독립기념관이 일단은 역사박물관의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그 건립위치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관련성이야말로 바로 그 건물이 기념해야 할 일차적 대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위치에 기념관이 세워짐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주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연전에 우리들이 겪었던 몇번의 문화재 이전복원작업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일인 것이다. 벨기에 영사관이 장소성을 잃고 번두리로 물러나 앉았을 때, 그리고 특히 독립기념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독립문이 고가도로 뒤킴으로 쫓겨 났을 때, 이들 기념적인 건축물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그들의 역사성을 상실하고 초라한 물골로 변해버렸던 것인가? 친일했던 사람들의 소행

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근대화의 기수들의 철학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회에 그러한 생산성 위주의 직선적 사고방식을 반성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위치적 조건의 두번째는 중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적 위치에 놓여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전 국민의 열망이 대변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대표성은 대외적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성을 띠게 된다. 독립은 우리들만의 독립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세력관계의 역학 속에서 비극적으로 잉태된 국토 분단의 현실을 세계에 분명히 알리는 일도 독립기념관의 위치선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이라 하겠다. 이는 앞에서 말한 중심성과도 통하는 것이겠으나 독립기념관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층 강조되어야 할 점인 것이다. 그곳은 하루의 일과 중에 스스럼없이 만나게 되는 장소이어야 하며 결코 산중의 사찰처럼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유리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독립을 기념하는 일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일부로서 영원어로 이어져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일수록 쉽게 망각해버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밖에 현실적인 문제로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지역계획적 측면에서의 고려를 들 수가 있다. 사실 국토개발의 불균형을 고려에 넣는다면 수도 서울의 끊임없는 팽창은 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이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불공정한 사태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국토계획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므로 일단 남북한의 중심적 위치라 할 수 있는 서울시에 한정시켜서 예상할 수 있는 대상지별로 위치적 조건들을 논의해 보겠다.

우선 서울 시내에서도 중심성의 기준에 따르자면 첫째로 들 수 있는 후보지는 중앙청 앞 세종로 일대가 될

것이다. 광화문 네거리로부터 중앙청에 이르는 지역의 교통문제를 도시설계기법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이 지역을 역사광장화 하여 완전히 보행인들에 개방하는 것이다. 좀더 과욕을 내자면 남대문으로부터 광화문까지를 역사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 세종로지역은 세종문화회관을 비롯 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될 예정인 중앙청(조선총독부), 치안국(내부청사) 등 기념적 건물들이 군집해 있어서 가장 생생한 현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기는 하지만, 그 역사성에 있어서 주로 치욕과 수모의 상징이 우세하다. 또한 대한제국의 황제가 경복궁에서 국권을 대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봉건적 질서인 왕권을 고수했던 것으로서 자연 오늘의 민중들에게는 괴리감을 느끼게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긴 역사와, 대한민국의 오늘이 결코 역사의 단절 속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아님을 생각한다면 이 지역이 갖는 장소성은 독립기념관 및 역사광장의 위치로서 적절한 것일 수 있다.

역사적 사건들과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두번째 후보지를 든다면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 일대가 될 것이다. 이 기회에 독립문을 푸대접했던 과오를 씻고 특히 옥고를 치르며 일제에 항거한 선인들의 의연한 자취를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아울러 일제의 잔악성을 실감하게 해 줄 것이다.

역사성을 지닌 서울 도심의 장소로서 파고다공원 일대가 앞의 두 후보지보다도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전자의 두 곳이 주로 지식층과 지도적 계층의 역사를 대변한다면 3·1공원이야말로 전 민중의 항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바로 민주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감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이다. 단지 이곳은 현실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재개발을 유발하게 되므로 독립기념관의 규모가 위축되고 말 소지가 있다.

남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개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무난하겠으나 역사성·중심성·접근성에서는 다소 뒤

지는 감이 있다. 실제로 남산공원은 서울시민들을 강력하게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서울시내 어느 곳에서나 조망될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확산현상으로 서의 신개발지에 눈을 돌려보자. 마침 1988년도의 세계올림픽이 개최될 강남의 올림픽타운 주변이나 고속터미널 주위, 또는 강남 전지역의 중심이 될 위치에 —과천 신도시까지를 고려하고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대규모의 인구가 정주환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시설의 균형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조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므로 독립기념관 같은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주게 될 영향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직 미개발지가 많으므로 현실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적다. 이런 신개발지라면 치욕과 고난보다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긍지를 표현하는 데에 더욱 좋은 후보지가 된다 할 것이다.

### 3. 표현내용의 문제 — 독립기념관은 어떠한 장소이어야 하는가?

독립기념관이 어떠한 장소로서 설계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미규정의 문제는 첫째로 “독립”이라는 개념과 “기념한다”는 행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전자는 그 건물이 무엇을 담고 표현하는가에 관한 물음이며 후자는 그곳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또한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어떠한 체험들을 방문객이 갖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문화현상을 기호작용으로 보는 기호학자들의 체계를 따르자면 기호 삼각형의 세 정점 중에서 건물을 記標(Signifier)로 보고 그 의미되어지는 대상, 즉 지시대상(Referent)과 그에 대한 우리의 관념(Idea) 양자를 記意(Signified)라 볼 때 바로 이 記意를 살펴보는 것이 첫번째 작업이 되는 것이다.

우선 “독립”이라는 개념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독립이란 非독립의 속박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항상 누

군가의 대상에 대한 의존·종속 또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와짐을, 그리하여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게되는 상태를 뜻한다. 그것은 결코 타인의 자비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항상 자립하겠다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힘에 대해 대항함으로써 쟁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 것이며 이러한 근본성격이야말로 건축적 표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전시실의 역사적 유물들이나 건축외적인 방법들—조각이나 기타 시작매체들—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겠지만 건축물의 조형이나 공간구성에 의해 줄 수 있는 강렬한 진장감에 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감각적 느낌뿐 아니라 건물의 프로그램에서부터 그런 식의 압제자의 존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예를 들어 일본제국주의나 모든 종류의 침략전쟁에 대한 연구소를 기념관 곁에 병치시키는 것은 어떠한가? 광화문 네거리의 충무공 동상이 물론 상징적으로는 왜구의 침입을 내포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적인 시야에서 긴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종류의 대립적 존재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음에서가 아닐까? 예를 들어 파고다공원의 담을 독립만세를 저지하는 일경들의 총검을 든 모습으로 돌려 놓는다면 어떠한 것인가? 고전주의의 차가운 미학에서 보면 소박하고 유치한 발상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독립기념은 고상하고 유식한 어른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후세의 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주의적인 표현도 필요할 것이다.

다시 “독립”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자. “독립”이란 대상언어가 아니고 상태를 표시하는 말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주권의 회복이며 동시에 영토를 되찾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이 다시 뭉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국토는 갈라져 있고 따라서 주권도 양분된 상태이며 해외에는 귀환하지 못한 동포들이 여전히 남

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독립은 미완성의 독립인 것이며 아직 경제적인 대외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그나마 절반도 이루었다고 하기 힘들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기념관은 “독립” 자체가 아직 미완성의 과제라는 사실과 통일이라는 미래에의 책임을 끊임없이 되새겨주는 장소이어야 한다. 내칭형 건물로 설계하고 그 어느 반쪽만을 건설하여 나머지 절반은 통일 후에 건설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왜 저 건물이 반쪽인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직 독립을 완수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면 된다.

“독립”이라는 상태의 이면에는 수치와 고난 그리고 잔악한 압제자와 그에 대한 항거가 있었음을 말했고 아직도 그 독립이 미완성임을 건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왔다. 이제 독립기념관에 장소성을 부여할 두번째 요소로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일어나야 할 행위들을 생각해 보고 그때에 어떠한 체험이나 감정 또는 건축가가 의도하는 효과들을 전제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이 우리들 자신의 자기동일성을 확인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우선 발견과 재확인인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다시 알게 되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되돌아 보게 될 것이고 나아가 미래에의 방향설정과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그곳은 속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빛을 되찾은 사실을 기념하는 곳으로서 이는 바로 환희의 장소이며 밝음의 장소로서 축제가 열릴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최소한 광복절 행사는 그곳에서 온 국민의 축제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식의 엄숙함이 광복의 희열을 억제하지 못할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겠다. 삼일독립운동이나 광주학생의거 등 각종 기념행사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적인 휴식처로서도 쓰일 수 있는, 그리하여 항상 우리들 곁에 친근하게 서 있고 우리의 뿌리깊음을 확인시켜 주는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해야 한다. 긍지와 미래에의 임무를 환기시켜 주면서도 항상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인들에게는 그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반성하게 해주고 외국의 관광객에게는 우리의 긍지와 역사를, 그리고 침략적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환기시켜주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독립기념관이 표현해야 할 이러한 내용들의 목록을 열거하자면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건축물이 지니게 될 의미는 큰 것이며 전국민의 열망이 건축가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건축가가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건축가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최대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는 타인을 감동시키려는 자이지만 결코 설계작업 속에서 흥분에 끌리지는 않는다. 물론 이 말이 건축가가 비정한 인간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 건축가는 해탈의 경지에 서서 감동의 세계를 관조하게 되는 인간일 수도 있다.

#### 4. 형식의 문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건축설계의 기법문제를 생각해 보자. 앞에서의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는 결국 자신의 작업대 앞에 홀로 서게 된다. 내용이 어떻게 형식으로 바뀌어 가는가? 이점에 대해서 한국의 건축가들은 그다지 운이 좋은 편은 못된다. 서구의 건축가들은 상당히 누적된 건축이론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은 항상 되돌아 갈 수 있는 고전주의라는 건축의 규율을 정립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건축가가 사용할 수 있는 모국어에 갖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 한국의 건축가는 건축적 어휘를 어떻게 얻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조와 신라는 서양의 회람만큼이나 먼 나라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건축적 모국어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된 것도 몇십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

여 그간의 시행착오로 남겨진 건축환경들은 콘크리트로 복제된 고도읍이며 다시 관료들의 행정력 앞에 무력했던 건축가들의 고전아닌 고전양식이었던 것이다. 전통건축언어에 대한 논란조차도 제 뿌리를 찾지 못한 채 오늘에까지도 달걀색 단청이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축의 형식에 대한 규범이 결코 사회적 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일반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건축가의 독자적 창조란 간과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축가들은 나름대로 모국어를 찾는 인고를 치러 왔으며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산을 볼 시기가 온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그러한 각자의 건축적 어휘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또 능숙하게 구사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건축가의 자기훈련과 창작의 도구로서의 전통, 즉 한 사회의 형식에 대한 통시대적 규범문제와 함께 공시대적(共時代的)인 형식체험에 대한 판단이 설계자들에게 요구된다. 한 사회 속에는 상이한 여러가지의 기호집단이 존재하는 바 이들 각 집단이 동일 형태의 기호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여박물관의 왜색시비같은 것은 바로 그러한 형태해석의 집단의존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가가 의도한 기호는 결코 왜색이 아니었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기호를 매다수 집단이 왜색인 것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기호집단의 근원적 보수성—언어자체의 보수성이기도 하다—뿐만 아니라 그 매다수 집단의 기호에 대한 건축가의 감수성의 결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근대건축을 지지하는 건축사자들이 말하는 이중신호화(Dual Coding)는 근대건축의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한 방도로서 독립기념관 건축에 있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것은 고급예술의 언어—필연적으로 난해성을 띄게 되는—와 대중예술의 언어를 공유하는 건축을 창조함으로써 문화적 다원론(Pluralism)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건축은 당연히 모호성을 갖게 되며 동시에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의미로서 읽혀지는 풍부한 문화적 환경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고급언어에 대한 체계있는 이론이나 대중언어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결국 문제는 건축가의 무모할 정도의 상상력에 맡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 건축언어의 미완성은 독립의 미완성과 어울려 그대로 이 시대의 거울로서 반영될 지도 모른다.

#### 5. 공동작업으로서의 건축언어

독립기념관은 어떤 양식의 건물이어야 하는가? 서구나 한국의 고전양식인가? 기하학적 추상양식인가? 아니면 양식을 거부하고 기능만을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기능주의의 양식인가? 앞서 논의한 표현내용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규칙들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표현형식의 문제뿐 아니라 구조나 기술·재료 등에 대해서도 전혀 개방적인 상태로 놓여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건축의 언어, 즉 1970년대 이후의 현대건축가들이 창작의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전통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기약하고 본고에서는 독립기념관이 지녀야 할 미학적 조건들을 장소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학계에서는 경험의 잡다한 현상들을 체계적인 틀 속에 정리하려 하고 예술가들은 그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단순화시켜 본다면 결국 이 양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야말로 한국건축의 언어를 정립하는 길일 것이며 바로 독립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그러한 공동작업의 장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